

기소장 요약문

육체적 피해

1. 잠복 매독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서울중앙병원에서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전체 53명 가운데 19명(35.9%)이 매독균에 대한 혈청검사서 양성반응을 나타냈다. 우리 나라 헌혈자의 양성률이 0.3%, 신체검사자의 양성률이 0.8% 정도로 매우 낮고, 성병관리 대상자들의 양성률 역시 9~15%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 10대 초반 혹은 중반에 시작된 군위안부 시절의 성경험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다수의 성적 파트너와 반복적으로 지속된 것의 결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매독이거나 치료된 잠복 매독이라 하더라도, 이는 혈액검사를 수행할 때마다 매독양성반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군위안부 여성 개인에게 사회적 낙인의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2. 외상

2000년 9월 인천사랑병원에서 실시한 검진 결과, 조사대상 14명 가운데 7명(50%)이 당시의 구타 및 외상으로 인한 후유증을 앓고 있었다. 군위안부 시절 팔이 비틀리고 총검으로 맞아 어깨관절이 탈구된 채 방치되거나 구타로 인해 양측 난청(김은혜), 칼로 찔린 흉터가 남아있는 사타구니, 총알과 칼에 의한 무릎 흉터(황금자), 칼로 찔리고 발로 채인 자국이 남아있는 왼쪽 둔부의 흉터(최갑순), 좌측 제4수지 중위지골 절단상태(김춘자), 도망가려다 붙잡혀 2주 동안 묶여 있었던 흔적이 남아있는 오른쪽 정강이의 상처(정윤희), 두정엽 부위를 칼집 썬운 군도로 맞아 생긴 두피 상처(길원옥), 온몸을 구타당할 때 귀를 맞아 생긴 난청(이옥선) 등이 그 예이다. 매우 제한된 사례에 대한 조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상처의 흔적이 명백하게 남아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비추어 본다면 군위안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일상적 폭력과 구타 등의 인권유린 상황이 만연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3. 정신신체적 장애(psychosomatic disorder)

인천사랑병원에서 조사한 14명 가운데 11명은 DSM-IV의 진단기준에 의한 만성적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Post Traumatatic Stress Disorder, Chronic)에 해당하였다. 이러한 진단을 내리기 위해 GAAB, Stream of Mental activity, Contents of thought, Emotional Reaction, Mental grasp and capacity, MMSE 등 Mental Status Examination과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과 Impact of Event Scale, Rorschach 등의 심리검사를 수행하였다. PTDS로 진단할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A. (1) 군위안부 시절 직접적으로 구타를 당하거나 혹은 총과 칼을 가진 군인이나 군속들이 주위 동료를 구타하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죽음의 위협을 느꼈고 (2) 이에 대한 무력감과 공포를 경험했으며

B. 군위안부 시절 후에도 남자, 특히 군인을 보면 두려워하였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신체적

반응이 있었다고 하며

C. (1) 당시의 경험을 생각하지 않으려 애쓰고, (2) 그런 경험을 떠올리게 하는 남자들과의 접촉을 피했으며, (3) 당시 경험의 많은 부분을 기억하지 못하고 (4) 결혼과 같은 정상적인 삶에 대해 기대하지 않으면서 살아왔고

D. (1) 귀국 후에도 잠을 잘 이루지 못할 때가 있었고 (2) 남자나 군인을 보면 깜짝깜짝 놀랐었다고 한다.

E. 위의 증상들이 수십년간 지속되었고

F. 환자는 상술한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적·직업적인 기능에 심각한 장애를 보여왔다.

즉 당시의 충격적 외상(trauma)으로 인한 후유증은 심리적·정신적 피해를 포함하여, 만성적 두통이나 소화불량, 가슴 두근거림, 수면장애 등의 신체적 피해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PTSD로 진단내릴 수는 없지만, 우울감과 불안, 흥미소실, 수면감소 및 수면장애, 자신에 대한 지나친 무가치감과 죄책감,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 등은 주요 우울 장애(Major Depressive Disorder)로 의심할 수 있는 사례도 있었다.

4. 흡연 관련 질환

상기 서울중앙병원의 건강검진 결과 10여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군위안부 여성들은 흡연을 하고 있었으며, 이는 국내 60대 이상의 여성 흡연율이 20%를 넘지 않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높은 수치이다. 군위안부 당시 혹은 그 직후부터 10대, 20대의 나이에 흡연을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현재 흡연관련 질환이 많다.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가 8명, 기관지 천식 환자가 3명이었다. 흡연을 위험인자로 고려할만한 협심증과 폐암, 자궁경부암 등을 포함하면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군위안부 생활 당시의 절박한 생존 조건, 스트레스와 긴장, 공포와 불안 등의 요인이 이들에게 흡연 촉발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5. salvarsan 주사로 인한 당시의 피해

군위안부의 증언에 의하면, 매독 등 성병치료를 위해 606호 주사(salvarsan)를 정기적으로 맞았다고 한다. 비소(arsentics)는 1940년대까지 성병 등의 치료제로 사용되었는데, salvarsan 투여한 직후 급성구토, 오심, 복통, 피가 섞이는 심한 설사, 근육경련, 안면부종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당시 매독에 걸려 606호 주사를 맞은 후 '사흘동안 하늘이 뱅뱅 돌고 속도 메스껍고, 월경도 한 달씩 건너했다(진경평 증언)', '그걸 맞고 나서 너무 아파서 죽으려고 하는 것을 여러번 보았다(손판임 증언)', '이 주사를 맞고 나면 코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어질어질했다(김복동 증언)'는 등 군위안부의 증언을 통해 salvarsan 주사의 후유증을 짐작할 수 있다.